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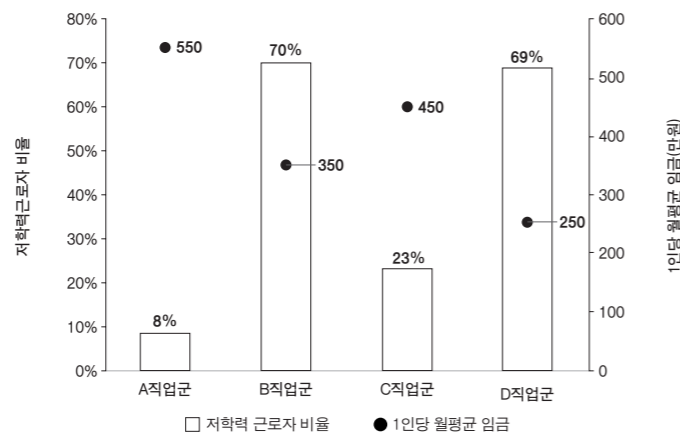
문항 2

[자료 1] ~ [자료 3]을 활용하여 <다음>의 밑줄 친 주장 (B)를 반박하고, 자료들을 바탕으로 기술 혁신이 초래할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시오. 자료에 제시된 것 이외의 모든 사항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600자 ± 60자, 40점)

다음

기술 혁신은 국가 및 지역의 경제 발전의 핵심 요인이며, 특히 일자리 창출 및 평균 임금 상승과 연관성이 높다.
(B) 최근 AI를 통한 기술 혁신이 향후 모든 사회 계층에서 임금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1] 2023년 현재 근로자 직업군별 저학력 근로자 비율 및 1인당 월평균 임금



※ 저학력 근로자: 중학교 이하의 교육을 마친 근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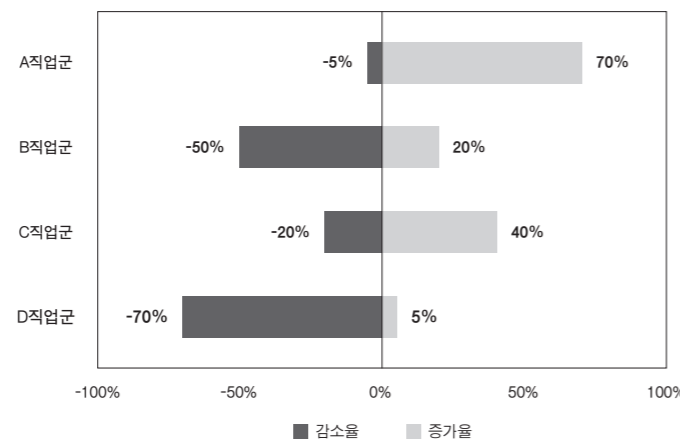
[자료 2] AI 도입에 따른 2030년 직업군별 기대 실질임금 변화율 예상치(%)

| | A 직업군 | B 직업군 | C 직업군 | D 직업군 |
|---------|-------|-------|-------|-------|
| 저학력 보유자 | 30 | -10 | 15 | -20 |
| 고학력 보유자 | 80 | -5 | 40 | -10 |

※ 실질임금은 물가상승 효과를 감안한 실질적인 임금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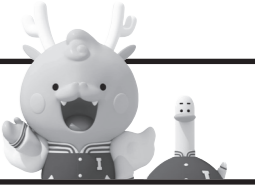
※ ※ 2023년 대비 2030년 실질임금 변화율 예상치를 추정

[자료 3] AI 도입에 따른 2030년 기대 일자리 증감률 예상치(%)



※ 2023년 현재 기준 각 직업군별 일자리 수는 모두 같음

2024학년도 논술 모의고사 문제(인문) 해설



1. 출제 의도

본 논술 모의고사는 제시된 논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과 주어진 제시문을 활용하여 논제를 심도 있게 분석하는 능력, 그리고 자료에 근거하여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이는 제시된 글 자료의 요지를 파악하고 주어진 조건을 고려하여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글을 구성하는 능력과 제시된 데이터 자료를 분석하여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정당화하는 능력을 요구한다. 또한 답안 작성 시, 글 자료 해석과 데이터의 분석뿐 아니라 관련 현상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습한 내용의 응용이 요구된다. 이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글을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은 논술에서 요구되는 기본 활동이다.

논제는 두 가지로 구성되었다. 그 중 첫 번째는 예술에 관한 두 가지 입장, 즉 예술가 중심 입장과 수용자 중심 입장을 설명하고, 그 중 한 입장에 의거하여 인공지능이 만들 저작물을 예술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논하는 것이다. 글 자료는 두 관점을 정당화하거나 반박하는데 필요한 논거를 제공하는 지문으로 구성하였다. 예술의 판단기준, 예술창작에서 예술가의 경험의 중요성과 예술가의 직접적인 창조적 노동의 중요성, 기술의 발전에 따른 예술 관념의 변화, 예술에 있어서 수용자(비평가 및 감상자)의 역할 등에 관련된 제시문을 제공하여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거나 반론하는데 논거로 삼도록 하였다. 두 번째 논제는 기술혁신과 임금의 관계에 대한 한 입장, 즉 기술 혁신이 향후 모든 사회 계층에서 임금 상승에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주어진 자료를 활용하여 반박하고, 아울러 자료에 나타난 사회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문제이다. 이 논제를 위해 인공지능(AI)의 도입이전과 이후 직업군별 노동자의 학력 분포와 임금의 차이, 일자리 변동 등 데이터 자료를 제시하여 기술혁신이 전반적인 임금 상승을 이끈다는 주장을 반박하고, 자료에 나타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였다. 위 논제와 제시문은 『통합사회』, 『경제』, 『사회·문화』, 『문학』, 『생활과 윤리』, 『국어』 등 교과서 내용에 준하여 제시되었으며,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수험생이라면 모두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개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다.

2. 문항 해설

본 논술 모의고사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쟁점이 되는 주제를 중심으로, 제시된 자료에 대한 분석 능력과 이를 활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시문에 활용된 주요 개념과 지식은 『문학』, 『통합사회』, 『경제』,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등 여러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것으로 수험생들에게 매우 익숙한 것을 취하였다. 문항은 제시된 글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능력과 데이터를 분석하여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정당화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두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문항 1]은 제시문의 핵심 요지를 파악하여 자신의 주장과 반론, 그리고 재반박에 활용함으로써 논리적 사고 능력과 서술 능력을 평가하도록 구성되었다. 논제는 제시문 (가)에서 설명한 예술을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하여 예술가 중심과 수용자 중심의 핵심내용을 정리하고, 그 중 하나의 입장에서 인공지능의 저작물을 예술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논하는 것이다. 제시문 (나)와 (마)는 반대 입장을 지지할 수 있는 근거로, 제시문 (다)와 (라)는 찬성 입장을 지지할 수 있는 근거로 제시하였다. 반대 입장은 예술을 판단하는 기준 중 예술가 중심의 시각에 의거하여 예술가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사상과 감정의 중요성, 예술가의 직접적인 창조적 노동의 의미 등을 자신의 논거로 삼고, 찬성 입장은 수용자 중심의 시각에 의거하여 예술 관념과 기술의 관계, 예술 관념의 변화가능성, 예술계와 감상자의 역할 등을 논거로 삼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제시문 (나)~(마) 중 자신의 입장과 반대되는 주장에 대해 반론을 전개하여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

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제시문 (가)는 예술에 대한 두 관점의 핵심을 정리하고 논제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는가에 관한 글 자료이다. 예술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예술가의 창의적인 관념과 감정을 표현하는 독창적인 창조활동으로, 예술가의 의도를 중시하는 관점과 감상자나 예술계와 같은 수용자에 의해 결정된다는 두 가지 관점을 설명하고, 아울러 현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인공지능에 의거하여 생성한 저작물을 예술작품이라 할 수 있는가라는 논제를 제시하고 있다.

제시문 (나)는 예술창작의 주요 특징이 미적가치의 창출을 목적으로 한 인간의 정신적, 물질적 활동이라는 점, 특히 예술가가 직접 참여하는 창의적인 예술적 노동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제시문은 예술의 기준이 예술가에 의해 결정된다는 시각을 지지하며, 이에 따라 전적으로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된 저작물은 예술가의 직접적인 창조적인 노동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에 대한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제시문 (다)는 인공지능에 의해 만들어진 미술 작품이 미술품 경매장에서 거래되고 미술대회에서 수상한 사례를 통해, 그 예술적 가치가 시장과 전문가 집단에서 수용되었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이 제시문은 예술가의 의도보다는 수용자의 입장이 중요하다는 시각을 지지하며, 예술적 가치는 대중과 예술계 집단의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는 견해에 대한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제시문 (라)는 사진의 역사를 통해서 예술의 개념은 물론 평가기준과 미적경험까지도 기술 발전의 영향으로 변화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특히 기술적 결과물인 사진의 예술적 가치가 법적으로 인정된 역사적 사례를 강조하고 있다. 예술의 개념과 형태의 변화에 기술 발전이 개입했고, 그러한 변화를 법원과 대중들이 예술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이 제시문은 예술인가 아닌가의 여부가 수용자 측의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는 견해에 대한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제시문 (마)는 예술에는 예술가 자신의 감정이나 체험이 작품 탄생의 중요한 토대가 되기에 진정한 예술은 예술가의 고통, 상실, 분노 등의 경험을 통해 성취된다는 입장이다. 그런 예술가의 노력 덕분에 대중은 예술작품을 보고 감동을 받거나 공감의 전율을 느끼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런 심미적 체험을 통해 유대감도 형성된다는 관점에서 시가 만든 작품을 예술작품으로 볼 수 없다는 논거로 사용될 수 있는 글 자료이다.

[문항 2]는 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직업군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한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다. 논제의 주장과는 달리, 자료로부터 유추하여 해당 주장을 반박하는 능력을 확인한다. [문항 2]는 다음과 같이 총 3개의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 1]은 2023년 현재 4개의 직업군별로 전체 근로자 대비 저학력 근로자의 비율과 해당 직업군의 1인당 월평균 임금을 도표로 나타낸다. A, C 직업군은 저학력 보유자 비율이 낮은 직업군이며, B, D 직업군은 저학력 보유자 비율이 높은 직업군이다. 또한 1인당 월평균 임금은 A, C 직업군은 대체적으로 높는데, B, D 직업군은 상대적으로 낮다. 이로부터 A, C 직업군은 고학력 근로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임금 직업군이며, B, D 직업군은 저학력 근로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저임금 직업군임을 알 수 있다.

[자료 2]는 AI 도입에 따른 2030년 직업군별 기대 실질임금 변화율 예상치를 학력별로 보여준다. A, C 직업군은 AI 도입과 함께 기대 실질임금이 증가하며 학력이 높을수록 그 증가율이 더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반면 B, D 직업군은 AI 도입과 함께 기대 실질임금이 하락하며 학력이 낮을수록 그 하락폭이 더 큼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자료 1]에 나타난 A, C 직업군과 B, D 직업군의 현행 임금 격차는 AI 도입과 함께 그 격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A, C 직업군과 B, D 직업군 간 비대칭적 저학력 보유자 비율로 인해 직군 간 임금 격차는 더욱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료 3]은 AI 도입에 따른 2030년 기대 일자리 증감율을 도표로 제시한다. 이 도표에서 나타난 증가율과 감소율은 이들을 합산한 순증가율로 해석 가능하다. 순증가율이 정(+)의 값을 가질 때는 일자리가 순증가하며, 순증가율이 부(-)의 값을 가질 때는 일자리가 순감소할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A, C 직업군은 향후 일자리가 순증가할 것이며, 그 반대로 B, D 직업군은 일자리가 순감소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이로부터 A, C 직업군은 [자료 2]에서 나타난 기대 실질임금의 증가와 함께 일자리의 순증가로 인한 직업군 내 평균 기대임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B, D 직업군은 일자리의 순감소로 인한 직업군 내 평균 기대임금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도출할 수 있다. 또한 이 자료는 AI 도입에 따라 직업군 간

고용 불균형이 발생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세 자료로부터 고학력·고임금 직업군인 A, C 직업군은 AI 도입 후 임금 상승과 일자리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저학력·저임금 직업군인 B, D 직업군은 임금 하락과 일자리 감소가 예상된다. 따라서 AI 도입은 직업군별·학력별 임금 차이를 심화시키고 고용 불균형을 초래하여 소득 불평등 문제를 불러올 것임을 알 수 있다.

3. 채점 기준

[문항 1] 채점기준

| 평가항목 | 채점 기준 | | 배점 |
|---------------------------------------|------------------------------------------------------------------------------------------------------------------------------------------------------------------------------------------------------------------------------------------------------------------------------------------------------|-------------------------------------------------------------------------------------------------------------------------------------------------------------------------|-----|
| · 제시문 (가) ~ (마)를 활용하여 자신이 선택한 주장을 정당화 | | | |
| | 찬성 | 반대 | |
| 예술에 대한 두 가지 관점 요약 | <ul style="list-style-type: none">예술 작품의 판단 기준 1<ul style="list-style-type: none">예술이란 예술가의 독창적인 창조활동의 산물예술가의 체험과 감정을 미적형식으로 표현예술 작품의 판단 기준 2<ul style="list-style-type: none">예술가의 의도보다는 수용자의 입장이 중요함예술적 가치는 예술계 집단의 판단에 의해 결정 | | 15점 |
| 제시문 (나) ~ (마)를 활용한 찬성 또는 반대 입장 정당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예술 작품의 판단 기준 2를 선택(다)의 논거: 예술적 가치를 시장과 전문가 집단이 수용한 경우(라)의 논거: 예술 평가기준은 기술 발전에 의해서 변화 가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예술 작품의 판단 기준 1을 선택(나)의 논거: 예술은 인간의 고유한 창조적 노동의 산물(마)의 논거: 예술에는 예술가의 고통, 상실, 분노 등이 승화된 심미적 체험이 재현되어야 함 | 15점 |
| 주장 논거에 대한 예상 반박 | <ul style="list-style-type: none">(나)의 논거: 예술은 인간의 고유한 창조적 노동의 산물(마)의 논거: 예술에는 예술가의 고통, 상실, 분노 등이 승화된 심미적 체험이 재현되어야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다)의 논거: 예술적 가치를 시장과 전문가 집단이 수용한 경우(라)의 논거: 예술 평가기준은 기술 발전에 의해서 변화 가능 | 15점 |
| 반박에 대한 재반박 | <ul style="list-style-type: none">인공지능에 의한 창작과정에도 인간 작가에 대한 정신노동이 포함됨인공지능이 만든 작품에서도 고통을 미학적으로 승화시킨 노력이 포함됨 | <ul style="list-style-type: none">인공지능 저작물은 미적으로 훌륭해도 삶의 진실한 재현이 아님감상자가 예술가의 인간적 고통에 공감하는 체험을 하기 어려움 | 10점 |
| 글의 논리성 | · 글 전체가 일관성을 유지하고, 논리적으로 잘 연결되고 설득력이 있음 | | 5점 |

[문항 2] 채점기준

| 평가항목 | 채점 기준 | 배점 |
|--------------------|-------------------------------------------------------------------------------------------------------------------------------------------------------------------------------------------------------------------------------------------------------------------------------------------------------------------------------------------------------------------------------------------------------------------------------------------------------------------------------------------------------------------------------------------------------------------------------------------------------------------------------------------------------------------------------------------------------------------------------------------------------------------------------------------------------------------------------------------------------------------------------------------------------------------------------------------------------------------------------------------------------|-----|
| [자료 1] ~ [자료 3] 해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 1]의 분석과 해석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군별로 저학력 보유자의 비율이 다르나, A, C군과 B, D군은 유사함 · 직업군별로 1인당 월평균 임금이 다르나, A, C군과 B, D군은 유사함 · A, C군은 저학력 보유자 비율이 낮고, B, D군은 높음 · A, C군은 1인당 월평균 임금이 높고, B, D군은 낮음 • [자료 2]의 분석과 해석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도입에 따라 A, C 직업군은 실질임금이 상승하고, B, D 직업군은 하락 · 실질임금 상승폭은 학력이 높을수록, 실질임금 하락폭은 학력이 낮을수록 더 커짐 · A, C 직업군과 B, D 직업군의 비대칭적 저학력 보유자 비율은 A, C 직업군과 B, D 직업군 간 임금 격차를 심화시킴 • [자료 3]의 분석과 해석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증가율은 증가율에서 감소율의 절대값을 뺀 수치로 해석 가능 · A, C 직업군에서는 순증가율이 정(+)의 값을 가져서 일자리가 증가하고, B, D 직업군에서는 순증가율이 부(-)의 값을 가져서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 가능 • 개선방안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교육을 통해 일자리 순 증가율이 높은 직업군으로의 재취업 교육 지원 · 세금을 통한 소득 재분배 달성 | 40점 |

감점요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p>[형식 요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각 항목별 5점 이내 감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론을 부연함 · 제시문에 나와 있는 문장을 원래의 완전한 문장 형태를 유지한 채 그대로 옮겨 적음 · 원고지 작성법, 맞춤법, 띄어쓰기 등의 오류, 부적절하거나 부정확한 어휘나 문장 등의 문제가 전반적으로 심각함 | ※ 1번 문항과 2번 문항 각각 감점은 15점 이내 | | | | | | | | | | | | | | | | | | | | | | |
| <p>[분량] 기준 분량을 어긴 경우(미달 또는 초과) 아래의 표에 따라 점수 조정</p> <table border="1"> <tbody> <tr> <td rowspan="5">1번</td> <td>500자 미만 (결시 아닌 백지 포함)</td> <td>(답안 내용에 관계없이) 0점 부여</td> </tr> <tr> <td>500자 - 699자</td> <td>10점 감점(-)</td> </tr> <tr> <td>700자 - 899자</td> <td>5점 감점(-)</td> </tr> <tr> <td>900자 - 1,100자</td> <td>감점 없음</td> </tr> <tr> <td>1,100자 초과</td> <td>5점 감점(-)</td> </tr> <tr> <td rowspan="5">2번</td> <td>340자 미만 (결시 아닌 백지 포함)</td> <td>(답안 내용에 관계없이) 0점 부여</td> </tr> <tr> <td>340자 - 439자</td> <td>10점 감점(-)</td> </tr> <tr> <td>440자 - 539자</td> <td>5점 감점(-)</td> </tr> <tr> <td>540자 - 660자</td> <td>감점 없음</td> </tr> <tr> <td>660자 초과</td> <td>5점 감점(-)</td> </tr> </tbody> </table> | 1번 | 500자 미만 (결시 아닌 백지 포함) | (답안 내용에 관계없이) 0점 부여 | 500자 - 699자 | 10점 감점(-) | 700자 - 899자 | 5점 감점(-) | 900자 - 1,100자 | 감점 없음 | 1,100자 초과 | 5점 감점(-) | 2번 | 340자 미만 (결시 아닌 백지 포함) | (답안 내용에 관계없이) 0점 부여 | 340자 - 439자 | 10점 감점(-) | 440자 - 539자 | 5점 감점(-) | 540자 - 660자 | 감점 없음 | 660자 초과 | 5점 감점(-) | 감점은 10점 이내 |
| 1번 | | 500자 미만 (결시 아닌 백지 포함) | (답안 내용에 관계없이) 0점 부여 | | | | | | | | | | | | | | | | | | | | |
| | | 500자 - 699자 | 10점 감점(-) | | | | | | | | | | | | | | | | | | | | |
| | | 700자 - 899자 | 5점 감점(-) | | | | | | | | | | | | | | | | | | | | |
| | | 900자 - 1,100자 | 감점 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1,100자 초과 | 5점 감점(-) | | | | | | | | | | | | | | | | | | | | | |
| 2번 | 340자 미만 (결시 아닌 백지 포함) | (답안 내용에 관계없이) 0점 부여 | | | | | | | | | | | | | | | | | | | | | |
| | 340자 - 439자 | 10점 감점(-) | | | | | | | | | | | | | | | | | | | | | |
| | 440자 - 539자 | 5점 감점(-) | | | | | | | | | | | | | | | | | | | | | |
| | 540자 - 660자 | 감점 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660자 초과 | 5점 감점(-) | | | | | | | | | | | | | | | | | | | | | |

4. 예시 답안

[문항 1]의 찬성 예시 답안

어떤 저작물의 예술작품 판단여부는 예술에 대한 정의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제시문 (가)에 따르면 예술작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예술가의 독창적인 창조활동의 산물이어야 한다. 예술품은 예술가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미적형식으로 표현한 것으로 창작자의 자율성과 독창성이 예술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반대로 예술작품 판단에서 중요한 것은 예술가의 의도가 아니라 수용자의 입장이라는 주장도 있다. 아무리 예술가가 자신의 심오한 의도와 창의적 관점을 부여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감상하는 감상자들이 예술작품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훌륭한 예술작품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관점 중 후자의 입장에서 인공지능이 생성한 저작물을 예술작품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인공지능이 그린 ‘에드먼드 벨라미의 초상화’가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예술작품으로 팔렸으며, 미드저니 프로그램에 의해 제작된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이 미술대회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인공지능이 만든 작품의 예술적 가치가 대중과 전문가들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다. 둘째, 발명된 초창기에 예술로 간주되지 않았던 사진은 인상파의 형성에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프랑스 최고재판소 및 각국의 법정에서 예술로 인정되었으며, 대중들에게도 예술로 승인되었다. 두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과학기술에 의해 제작된 예술품도 이미 일반 대중과 예술계에서 그 예술적 가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 예술작품은 예술가 개인의 창작이라는 특수한 노동 과정과 그 산물에 대한 창작자의 승인에 의해 결정되며, 이 때문에 저작권으로 보호된다는 반론이 있다. 나아가 예술가 자신의 고통을 미학적으로 승화시킨 노력이 담겨 있어야 하며 이런 작품들이야말로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과 연대를 자아내고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준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과정에도 인간 작가의 정신노동이 포함되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저작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인공지능이 사용한 데이터 원천에는 이미 예술가의 고통을 미학적으로 승화시킨 노력이 포함될 수 있으며, 감상자들은 인공지능이 만든 작품이라도 충분히 예술가의 고통을 느끼고 공감할 수 있다. (1,085자)

[문항 1]의 반대 예시 답안

어떤 저작물의 예술작품 판단여부는 예술에 대한 정의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제시문 (가)에 따르면, 예술작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예술가의 독창적인 창조활동의 산물이어야 한다. 예술품은 예술가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미적형식으로 표현한 것으로 창작자의 자율성과 독창성이 예술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하다. 그러나 예술작품 판단에서 중요한 것은 예술가의 의도가 아니라 독자와 관객, 감상자나 평론가의 입장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런 시각에서는 어떤 저작물의 예술작품 여부는 예술가 자신이 아니라 일반 독자와 예술계 전체의 집단적인 판단으로 결정된다.

이 두 가지 관점 가운데 전자의 입장에서 인공지능이 생성한 저작물을 예술작품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첫째, 인공지능이 만든 저작물은 인간의 정신적, 물질적 활동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술작품은 우연히 얻은 미적가치이거나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기발함이 아니라 인간의 의식적이고 자각적인 작업을 통해 완성된 창조적 노동의 산물이다. 둘째, 인공지능이 만든 저작물에는 예술가의 삶이나 체험이 반영될 수 없기 때문이다. 훌륭한 예술작품에는 예술가 자신의 심미적 체험뿐 아니라 상실, 분노, 고독과 같은 자신의 고통을 미학적으로 승화시킨 노력이 담겨 있으며, 그와 같은 예술작품을 통해 독자들도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는 숭고한 체험을 하게 된다. 인공지능 저작물은 고통의 승화보다는 수많은 데이터와 명령문에 의해 만들어지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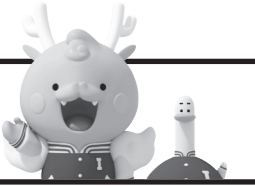
이런 과정이 생략된다.

그러나 예술가 자신보다는 평단이나 시장의 반응이 더 중요하고, 사진처럼 과학기술 발전으로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여 예술에 대한 개념이 변화 가능하기에, 인공지능이 그린 작품도 예술작품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미학적으로 뛰어난 아름다움을 보여준다고 해서 독자가 새로운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고희의 그림에 전율을 느끼는 것은 일상적인 사물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창의적인 해석을 통해 고희의 각성과 인식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의 그림을 보며 그런 체험을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인공지능 저작물은 미학적으로는 훌륭할지라도 실제 삶의 진실한 재현이 아니기에 예술작품으로 보기 어렵다. (1,064자)

[문항 2] 예시 답안

AI 기술 도입은 직업군별·학력별 임금 수준 차이를 심화시키고 고용 불균형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자료 1]과 [자료 2]에서 고학력 보유자 비중이 높고 1인당 평균 임금이 높은 A, C 직업군은 AI 도입 후 실질임금이 증가하지만, 저학력 보유자 비중이 높고 평균 임금이 낮은 B, D 직업군은 AI 도입 후 오히려 실질임금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A, C 직업군과 B, D 직업군의 비대칭적 저학력 보유자 비율은 이러한 실질임금 격차를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자료 3]에서 A, C 직업군은 AI 도입 후 일자리가 순증가하지만 B, D 직군의 일자리는 순감소한다. 즉, 고학력·고임금 일자리는 AI 도입 후 임금 상승과 일자리 증가가 예상되지만 저학력·저임금 일자리는 임금 하락과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어 소득불평등 문제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일자리의 순 증가율이 높은 직업군으로의 재취업 교육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 둘째, 저학력 보유자의 고학력 취득을 돕기 위한 학자금·장학금 제도와 같이 성인 대상 고등교육 기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AI 도입으로 소득 증대 효과를 보거나 일자리 대체를 한 직업군으로부터 세금을 거둬 소득 재분배 또는 실직 근로자 지원에 사용할 수 있다. (640자)



2024학년도 논술 모의고사 문제(자연 : 일반(의예과 외))

문제 1 (35점)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곡선 $y=f(x)$ 위의 점 $(a, f(a))$ 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y-f(a)=f'(a)(x-a)$$

(나) 매개변수로 나타낸 두 함수 $x=f(t)$, $y=g(t)$ 가 t 에 대하여 미분가능하고 $f'(t) \neq 0$ 이면

$$\frac{dy}{dx} = \frac{\frac{dy}{dt}}{\frac{dx}{dt}} = \frac{g'(t)}{f'(t)}$$

(1-1) 곡선 $y=e^x$ 위의 한 점 $Q(0,1)$ 에서 곡선 $y=e^x$ 의 접선을 l 이라 하자. $b < e^a$ 를 만족하는 좌표평면 위의 한 점 $P(a,b)$ 에 대해서 선분 PQ 는 직선 l 과 수직이고, 점 P 로부터 직선 l 까지의 거리가 1이다. 이 때, 점 P 의 좌표를 구하시오. [8점]

(1-2) $v < e^u$ 를 만족하는 두 실수 u, v 에 대하여, 중심이 (u,v) 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 곡선 $y=e^x$ 과 한 점 (t, e^t) 에서 만나며 그 점에서의 두 곡선의 접선이 일치할 때, u, v 를 t 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12점]

(1-3) (1-2)에서 구한 u, v 를 $v=f(u)$ 로 나타낼 때, $u = \frac{\sqrt{2}}{2}$ 에서 곡선 $v=f(u)$ 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15점]

문제 2 (35점)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미분 가능한 함수 $f(x)$ 에 대하여 $f'(a)=0$ 이고 $x=a$ 의 좌우에서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면 $f(x)$ 는 $x=a$ 에서 극대이고, 극댓값은 $f(a)$ 이다.

(나) 함수 $f(x)$ 의 이계도함수 $f''(x)$ 가 존재하고 $f'(a)=0$ 일 때, $f''(a) < 0$ 이면 $f(x)$ 는 $x=a$ 에서 극대이고 극댓값은 $f(a)$ 이다.

(※) 구간 $[-1, 1]$ 에서 정의된 함수에 대한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2-1) $f(x) = ax + b - \frac{1}{3-x}$ 이라 하자.

(a) $f'(c) = 0$ 인 c 가 $[-1, 1]$ 에 존재하기 위한 a 의 범위를 구하시오. [5점]